

지역 소식통

정읍시, 논·밭농업 직불금

14억4500만원 지급 시작

정읍시가 어려운 농업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땅을 일구는 농민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14억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23일부터 '논농업환경보전 직불금(도비)'과 '밭농업 직불금(도비·시비)' 총 14억4500만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 농지에서 1000㎡ 이상의 논농사 또는 밭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다.

지원 단가는 작물 재배 형태에 따라 구분된다. 우선 논농업 직불금은 1ha당 13만2000원으로 책정됐으며, 지급 대상자 1인당 최대 3ha(39만6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밭농업 직불금의 경우 최대 1ha(7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북부 생활권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고창군이 지난 22일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북부생활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통합형)'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사업의 첫발을 내디뎠다.

보고회에는 고창군수를 비롯해 사업 핵심 관계부서와 용역 수행기관이 함께 참석해 고창군 북부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 수립과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북부 생활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통합형)'은 2026~2030년(5개년)까지 총사업비 300억원(국비 210억, 도비 27억, 군비 63억)이 투입된다.

흥덕면에는 주민 숙원이었던 체육관과 작은목욕탕 등 주민편익시설이 만들어진다. 성내면에도 동립저수지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테마로 일과 휴양, 체험학습이 결합된 연계센터와 체형맞춤형 스포츠센터, 체류형 복합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고창군의 관문인 북부생활권에 다양한 생활 서비스 시설과 통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동립저수지의 생태자원과 경관을 바탕으로 생활·관광 인구의 유입 기반을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지향의 가치, 국가가 인정

정읍 지향 농업시스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20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

조선 전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정읍의 '지향 농업'이 그 역사적·생태적 가치를 국가로부터 공인받았다. 정읍시는 지역 고유의 농법과 문화를 간직한 '정읍 지향 농업시스템'이 지난 22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20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지역의 환경, 사회, 풍습에 적응하며 오랫동안 형성된 유·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높은 것을 국가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서 19개소가 지정됐으며, 이번에 정읍 지향 농업시스템이 스무 번째 주인공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번 성과는 시와 공동주최인, 지향재배 농가, 관련 산업 주체들이 지난 2년에 걸쳐 혼연일체가 돼 준비해 온 노력의 산물이다. 시는 지난 2024년 첫 도전 이후, 지향 재배가 가진 역사적 맥락과 생물 다양성 등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철저한 현장 조사와 자료 정비를 진행했다. 또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신청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이 더해지며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이라는 결실을 맺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전국 지자체로부터 3개의 후보지를 접수했다. 이후 농업유산자문위원회의 심도 있는 전문과 검토를 두 차례 거치고, 현장 조사를 포함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정읍을 최종 선정지로 확정했다.

심사 과정에서 정읍 지향 농업시스템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재배의 역사성과 지속 가능성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뽕짚을 활용한 종자(종근) 소득 △뽕의 힘을 회복시키기 위해 여러 작물을 번갈아 짓는 윤작 농법 △야생 번 짚고 아홉 번 말리는 전통 방식인 '구중구포'를 계승한 숙지향 제조 등 정읍만의 고유한 농업 기술이 현재까지 생생하게 전승되고 있다는 점이 인정받았다.

또한, 이러한 전통 농업을 기반으로 한 숙지향·쌍화차 산업이 재배 농가 뿐만 아니라 가공업체와 찻집 등 지역 공동체의 주요한 생계 수단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혔다.

이번 지정에 따라 시는 향후 3년간 약 14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이를 통해 농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 관련 자원 조사, 활용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국비 지원을 마중물 삼아 지향 농업유산의 산업적 가치를 높이고, 이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앞으로도 정읍시는 정읍 지향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보훈회관' 공식 개관

보훈 문화 확산 거점 역할 기대

민선 8기 고창군의 핵심 공약사업이자 지역 보훈단체의 숙원이었던 '고창군 보훈회관'이 공식 개관했다.

23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고창군 보훈회관(고창읍 성산로57)' 개관식을 열었다.

이날 개관식에는 고창군수를 비롯해 조민규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 윤준병 국회의원, 전북도의원, 국가보훈부와 전북도 관계자, 전북도지부 보훈단체장 및 관내 보훈단체장, 보훈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고창군 보훈회관은 총사업비 49억 5000만원(국비 5억원, 도비 5억원, 군비 39억5천만 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1,418㎡, 연면적 994.18㎡ 규모로 건립됐다. 주요 시설로는 보훈단체 사무실, 다목적실, 소회의실, 상담실, 자활사업

단이 운영하는 카페 등이 조성돼 보훈가족은 물론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보훈회관 개관은 민선 8기 심덕섭 고창군수의 공약 '기억하고 책임지는 사회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다. 시설 노후화와 단체 분산으로 불편을 겪어왔던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 통합된 지원 환경을 제공하고, 맞춤형 보훈 복지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창군수는 "보훈회관은 단순한 시설을 넘어 보훈가족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애국정신을 계승하는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존경과 감사로 보답하는 보훈 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장, 미래 성장동력 확보 '총력전'

국토부 장관 찾아 면담... 핵심 현안 논의·국비 58억 확보 성과

정읍시가 국가 주도 산업·교통·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 협력을 본격화하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 22일 정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장관실에서 김윤덕 장관과 관계 과장들이 배석한 가운데 면담을 갖고 정읍시 핵심 현안사업 6건에 대해 정책 방향은 물론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실무적인 사항까지 폭넓게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정읍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고 사업별 추진 여건과 현실적인 이행 방안을 중앙부처 실무진과 함께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학수 시장은 △첨단의료복합

국가산업단지 지정 △첨단과학산업단지 용도 변경 △태인일반산업단지 조성(첨단과학산업단지 부지 확장) 등 산업단지 분야 3개 사업을 중심으로 정읍을 미래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연결도로 개설 사업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비 58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며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면담은 장관님 뿐만 아니라 국토부 실무진과 함께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정읍의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격포 오네뜨 더 오션' 홍보관 그랜드 오픈

부안 격포지역주택조합, 변산면 격포항 인근 조합아파트 288세대 공급... 서해바다 정면 조망 최고

부안 격포지역주택조합에서 '격포 오네뜨 더 오션' 홍보관을 연다.

격포 오네뜨 더 오션이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271-33번지에 아파트 288세대를 공급하는 조합아파트로 84타입 216세대 96타입 36세대 111타입 36세대로 그랜드 오픈하고 조합원 모집을 시작했다.

특히 격포 오네뜨 더 오션은 서해바다를 정면으로 조망할 수 있는 입지와 감성적인 공간 구성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활황한 일몰을 자랑하는 서해바다를 바로 앞에서 조망할 수 있는 입지가 강점이다.

격포항 인근 해안에 위치해 탁 트인 바다 전망을 자랑하며 사계절 변화하는 풍경과 우리나라에서도 최고를 자랑하는 서해바다 일몰 조망이 가능해 체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격포 오네뜨 더 오션은 과도한 장식이나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서해바다 풍경 자체가 중심이 되는 구조를 채택해 공간보다 천혜의 자연경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 완성도를 높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자연친화적인 소재와 절제된 컬러톤을 적용해 시각적 피로를 줄였으며 동선과 공간 배치를 장시간 머물러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반 분양 아파트 대비 합리적인 가격이 장점으로 꼽히는 만큼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네뜨 더 오션 관계자는 "홍보관 개관을 통해 조합원 예정자들이 사업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공급증을 해소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며 "투명한 정보 제공을 최우선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격포 오네뜨 더 오션 홍보관은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 247번지에 오픈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063-581-7779)로 가능하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순항

'야생벌 봉봉이를 지켜주세요!' 프로젝트... 목표 모금액 3억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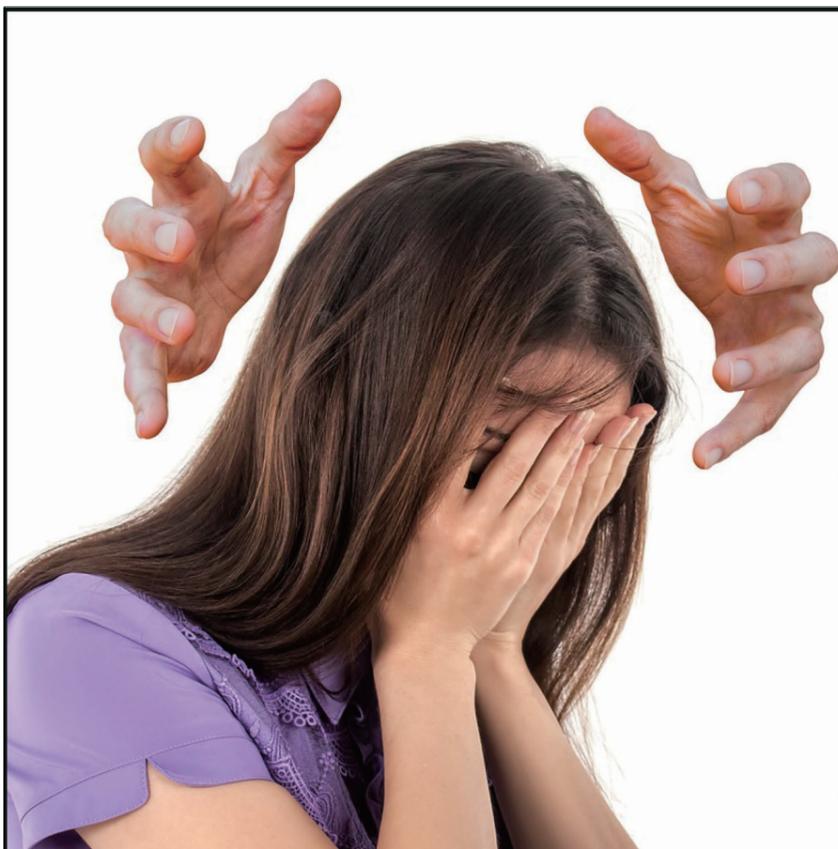
부안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으로 추진한 '야생벌 봉봉이를 지켜주세요!' 프로젝트가 기부자들의 꾸준한 참여 속에 목표 모금액 3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기후변화와 서식지 감소로 위기에 놓인 야생벌 보호를 목적으로 밀원식물 조성 및 인공 서식지인 '비호텔(Bee Hotel)' 설치, 생태환경 개선 활동 등을 통해 지역 생태계 회복에 기여하는 환경보호 ESG 사업이다. 단순한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한 생태 공간 조성

과 생활 속 환경 캠페인까지 연계한 점이 기부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호텔 1·2호 설치, 기부자 초청 기념행사, 농약형 마대 수거, 꽃차 배포 등 구체적인 실천 사업을 이어가며 기부금이 지역 변화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운영은 지정기부제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